



김제 백산면 농민회, 풍년 기원 영농발대식 개최

김제시 백산면 행정복지센터는 백산면농민회(회장 강오석)가 지난 11일 한 해의 풍년을 기원하는 '2024년 풍년 기원 영농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백산면 농민회를 비롯한 사회단체장, 이장협의회 등 100여 명의 주민이 참석해 농민들의 무사안녕과 풍년 농사를 기원하는 마음을 서로 나눴다. 발대식을 기념하기 위해 식전 공연으로 풍물놀이와 난타, 라인댄스 공연을 선보였으며 '백산면 농민회의 풍년 기원 영농발대식'은 한 해의 풍년 농사를 기원하며 영농 시작을 알리는 뜻에서 매년 실시되고 있다. 강오석 농민회장은 "노동의 결실과 자연의 선물에 항상 감사하며, 우리의 노력이 풍년을 이루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미화 백산면장은 "항상 어려운 여건 속에도 애써주시는 농업인 여러분에 감사드리며 올 한 해는 자연재해 없이 풍년 농사가 되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김제=곽태 기자



정읍시 보건소, 저소득층 어르신 의치 무료지원

정읍시 보건소는 치아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저소득층 어르신에게 의치(틀니)를 무료로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본인 부담 감감 대상자이다. 단, 이전에 보건소에서 노인 의치 시술비용을 지원받았거나 치과의원에서 7년 이내 건강보험 적용자로 지원받은 경우, 구강 검진 후 틀니 불가 판정을 받은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을 받으며 신청 방법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지(진료)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 보건소는 구강보건실에서 전신 건강과 구강 상태를 1차 검진한 후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대상자는 지역 내 32개소 협력 치과의원에서 무료로 의치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며, 5년간 사후관리와 사후관리비도 지원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구강 관리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저하된 구강 기능을 회복하는 데 기여하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 소성면, 36개 경로당 돌며 복지서비스 제공

정읍시 소성면은 경로당을 순회하며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면은 지난 4일부터 36개 경로당을 순회하며 회계교육과 시설점검, 기초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회계교육은 경로당에 지원되는 보조금에 대한 이해 부족, 보조금 지출 방법 미숙 등 보조금 정산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해 청렴한 경로당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한파와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냉·난방기와 소방시설을 점검했다. 이와 함께 보건지소 방문 서비스 사업과 연계해 어르신들의 혈압·혈당 측정, 기초 건강상식 안내 등 맞춤형 건강 상담 제공으로 그물망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했다. 백운기 면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 통합행정으로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더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수시로 경로당을 방문해 지역주민들의 보건복지 서비스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산업동물·대동물 분야 교육 진출하길”

차오름동물병원 차승언 원장, 전북대에 1천만원 기부

전북대학교 수의학과 동문인 차승언 차오름동물병원장이 모교에 발전기금 1천만 원을 기부했다고 전했다. 12일 전북대 발전지원재단에 따르면 이날 오후 대학본부 총장실에서 양오봉 총장과 대학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발전기금 기증식을 열고, 감사패를 전달했다. 차승언 원장은 “해군 학사장교 복무 후 수의학과 본과 1학년으로 편입했는데, 감사하게도 성적장학금을 받아 등록금을 면제받았다”며 “동생들이 받을 장학금을 편입생 형이 받은 것에 부채의식이 있었는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조금이나마 보답을 한 것 같아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차 원장은 지난해 실시한 구례역·립피스킨 일제접종기 일부를 모아 발전기금을 마련, 이 기금은 수



의대 후배들의 산업동물·대동물 분야 교육 환경 개선에 쓰일 예정이다. 차승언 원장은 “산업동물·대동물 입상은 대한민국 축산업의 지탱하는 중요한 분야지만, 현재 대학에서는 대부분 반려동물 위주의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젊고 유능한 후배들이 보다 많이 진출하길 기

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조금씩 모교 발전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며 “글로벌 대학에 최종 선정된 모교의 발전상에 뿌듯하고, Global TOP 100의 목표를 달성할 가까운 미래의 모교에 미리 박수를 보낸다”고 덧붙였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북대 이상현 교수, 제26대 산림과학회장 취임

전북대학교 이상현 교수(산림환경학과)가 최근 열린 제65차 산림과학공동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서 제26대 한국산림과학회 회장으로 취임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2년이다. 한국산림과학회(구 한국임학회)는 1980년에 창립, 국내 산림과학 분야 학회 중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 160여 기관회원과 1,000여 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한국산림분야를 대표하는 학회다. 신임 한국산림과학회장에 취임한 이 교수는 University of Canterbury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1999년부터 전북대 산림환경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또한 University of Washington 연구교수와 국무총리실 정부업무평가위원, 산림청 산촌진흥운영의 중앙자문위원, 산림조합 국가산림조사센터의 자문교수, 산림청 정책평가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산림과학기술위원회 산림 R&D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이상현 교수는 “학회지의 세계화, 학회의 설립목적 달성, 학문 후속세대의 양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및 사회적 공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적십자 남원봉사관 이전·개관... 남원적십자 평생대학 개강식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회장 이선홍)가 12일 남원봉사관 이전·개관식 및 남원적십자 평생대학 개강식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대한적십자사 전북자치도지사 이선홍 회장, 정하복 봉사사회 전북자치도협의회장, 이충선 남원지구협의회장, 최경식 남원시장, 전평기 남원시의회 의장, 남원적십자 평생대학 김진식 학장 및 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봉사관 이전·개관을 축하했다. 남원시 교육청에서 하정동으로 이전한 남원봉사관은 2001년 첫 개관 이래 봉사원에게는 봉사활동 거점으로, 지역민과 기업에는 나눔 실천의 장으로서 역할을 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남원적십자 평생대학, 취약계층 대상 무료급식, 봉사원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지역 거점으로서 역할을 다할 예정이다. 이선홍 회장은 “남원봉사관이 남원시의 든든한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도주의 활동을 펼칠 것”이라며 “더 많은 소의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재훈 기자



년 첫 개관 이래 봉사원에게는 봉사활동 거점으로, 지역민과 기업에는 나눔 실천의 장으로서 역할을 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남원적십자 평생대학, 취약계층 대상 무료급식, 봉사원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지역 거점으로서 역할을 다할 예정이다. 이선홍 회장은 “남원봉사관이 남원시의 든든한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도주의 활동을 펼칠 것”이라며 “더 많은 소의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재훈 기자

완산소방서, 119생활안전대 현장대응 강화 특별훈련

전주완산소방서(서장 박경수)는 오는 14일까지 119생활안전대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특별훈련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119생활안전대는 소방기본법(제16조3 생활안전활동)에 따라 붕괴·낙하 등의 우려되는 고드름·나무·위험 구조물 등의 제거활동, 위해동물포획, 기암·고립 등에 따른 위험 제거 및 구출 등을 생활안전사고 대응을 위해 운영된다. 이번 훈련은 실제 교통사고 기암사고 및 구조물 제거 상황을 가정해 실물 차량 문과 대형 목재를 동력절단기와 체인톱으로 파괴·절단하는 실전형 특별훈련으로 현장대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동력절단기 활용 차량 문 개방 실물 훈련 △체인톱 활용 쓰러진 나무 등 구조물 제거 실물 훈련 △생활안전대 정비 사용 숙달 △출동 시 사고사례 전파 및 주의사항 교육 등이다. 박경수 소방서장은 “실질적인 교육을 통해 생활안전대의 전문성과 현장대응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남원 도통동 지사협, 고원 식당에 착한가게 현판 전달

남원시 도통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소선자, 서덕교)는 지난 11일, 관내 고원(대표 박병주) 식당에 착한가게 현판을 전달했다. 착한 가게는 매일 매출의 일정액 (월 3만원 이상)을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랑 나눔을 실천하는 가게로 올해 들어 4번째로 선정된 가게이다. 서덕교 위원장은 “어렵고 침체된 지역 경기 속에도 선뜻 기부에 동참해준 착한가게 대표에게 대표에게 감사드립니다”라고 전했다. 소선자 동장은 “동에 나눔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더욱 많은 가게가 나눔에 동참해 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덕진소방서, 영유아 스마트 급급서비스 운영

전주덕진소방서(서장 강동일)가 영유아 스마트 119급급서비스를 운영 한다고 12일 밝혔다. 영유아 스마트 119급급서비스는 특이질환 보유 영·유아 환자에게 맞춤형 119급급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취약계층 안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운영 한다. 영유아 스마트 119급급서비스는 이달부터 운영을 시작, 만 6세 이하 특이 질환자 대상으로 운영하고 초등학교까지는 탄력적으로 대상을 선정 한다. 이송 기준은 단순 외래 진료, 입원 목적 등을 제외한 응급증상 발생 환자이다. 신청방법은 119로 직접 신청 또는 소방서(119안전센터) 및 보건소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보호자(법적 대리인)이고 서비스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구비하여야 한다. 신청이 완료되면 도 119종합상황실에 등록이 되고 응급증상이 발생해 119급급대가 출동시 제공된 정보를 활용하여 맞춤형 처치 제공 및 병원선정이 가능하다. 이에 전주덕진소방서는 관내 5개 구급대(금원·2, 팔복진미, 이중)에 전자자격자(1급응급구조사 및 간호사) 1인 이상 배치를 확인하고 구급대원 대상으로 해당 서비스 운영에 관하여 교육을 실시 했다. /김재훈 기자



남원시 도통동,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남원시 도통동(동장소선자)은 12일, 동 3층 회의실에서 통장회의에 참석한 50여명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교육 등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정영옥 도통동지구대장이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휴대전화의 국제전화 차단기능 설정 △범죄예방 예방 △범죄예방 능동기 사별이 안전운행 △음주운전 홍보 △절도(차량탈취) 등) 발생 예방법을 교육했다. 이거구 통장협의회장은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국제전화 차단과 010, 문자 재차서신 보이스피싱 스마트치안에 대해 다시 한번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전했다. 한편 도통동지구대에서는 고령화된 농촌지역 특성상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사제 대민 홍보반으로는 한계가 있음에 주민들이 보이스피싱 등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정읍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찾아가는 상담소 운영

정읍시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김용)가 지역 내 3개 병원(정읍아산병원, 정읍사랑병원, 정읍한국병원)과 시민의 정신건강 지원에 나섰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3개 병원과 함께 시민의 정신건강문제를 예방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자 마음안심서비스를 활용한 이동상담소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동상담소는 매일 화요일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운영한다. 첫째 주 화요일은 정읍아산병원, 둘째 주 화요일은 정읍사랑병원, 셋째 주 화요일은 정읍한국병원에서 이동상담소를 운영할 예정이다. 김용 센터장은 “이동상담소는 시민 누구나 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며 “마음 건강 회복과 정신건강 위험군 발굴에 노력해 더욱 촘촘한 정신건강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힘쓰겠다”고 전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김제 검산동 복지기동대, 주거환경개선 앞장서

김제시 검산동 행정복지센터는 복지기동대(대장 최준열)가 주거환경개선 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전북장애인정보문화협회(지회장 박철규)와 함께 검산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은 시책관리와 방문상담을 통해 직접 발굴한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목거노인 가구를 방문해 LED 전등 교체, 집 내·외부 청소 등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도움을 받은 대상자는 “전북장애인정보문화협회와 복지기동대원들이 주거환경개선 작업을 해 주니 마음 편히 지낼 수 있을 것 같다”며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신 이웃들 덕분에 삶에 희망이 생겼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최준열 복지기동대장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을 도울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송영애 검산동장은 “검산동 복지기동대가 우리 주민의 소외된 이웃을 보살피는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제=곽태 기자